



# 가상으로 엮보는 Internet of Everything의 미래

글 Matthew Smith (Head of Transformational Strategy, Internet of Things and Emerging Countries)

인간은 흔히 자신의 경험에 구속된다고 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떤 가능성의 세계로 바꿔놓을 지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없이 지나간 지난 2008년은 사실 인류 미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바로 지구상의 IP주소 개수가 전세계 인구 수를 넘어선 해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보급으로 6~7년 후에는 IP주소가 500억 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것은 모두 연결되고, 연결된 모든 것은 지능화될 것입니다. 이를 신조어로 표현하자면 세계의 "IPfication"이라 하겠습니다.

IPfication이 창출할 엄청난 기회와 관련 시장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마이클 넬슨(Michael Nelson) 교수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시장 규모를 파악해보려는 시도는 1940년 무렵에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추산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시엔 플라스틱이 어디에나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Michael Nelson, Georgetown University

Internet of Everything의 등장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다음과 같이 지능적으로 연결됩니다.

- **사람:** 보다 가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사람들
- **프로세스:**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시스템에 적시에 전달하는 프로세스
- **데이터:**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
- **사물:** 인터넷과 서로에게 연결된 물리적인 기기와 사물

## 왜 하필 지금일까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이미 1990년대부터 회자되었습니다. 한때 무선인식 시스템인 RFID 같은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았지만, 당시엔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이야 가능할까요? 해답은 바로 '연결성의 경제'에 있습니다. 오늘날 무선 통신이 급격히 발전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인류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급격히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 Internet of Everything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냉장고가 여러분에게 냉장고 안이 반쯤 차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단순한 일에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상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들르는 슈퍼마켓에 전달된다면, 슈퍼마켓은 이전의 구매 패턴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을 선별해서 여러분이 미리 지정한 시간에 배달해주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욕실 체중계도 프로세스에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에 희망하는 몸무게를 설정했다면, 애플리케이션이 계산한 체중 조절법에 따라 슈퍼마켓이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상품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 더 나아가

심박수, 혈압, 유산소 운동을 측정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손목 밴드나 지능형 시계를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주치의도 이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제 주치의에게 치료 대신에 예방 중심의 의료 조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험사가 이런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의사의 조언에 따른 경우 보험료 혜택을 준다면, 여러분은 이 조언을 적극 따라야겠다는 동기도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도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동하며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용 등급, 금융 상품,

타겟 광고 등 다른 많은 것들과의 연결에서도 어떤 새로운 가치가 생겨날지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꺼내 들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지 60분이 지나는 동안에 약 20만 대의 휴대폰이 팔렸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60분 동안 구글 (Google) 검색 건수는 2억 건이 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집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을 분량의 데이터를 전 세계로부터 단 몇 초 만에 얻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이런 변화를 거부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동참한다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호 시스코 서비스 디스커버리 에서는 Internet of Everything에 대해 보안, 비즈니스 모델링, 수익창출 전략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Internet of Everything 웹사이트  
<http://internetofeverything.cisco.com/>